

	<h1>보 도 자 료</h1> <p>제공일 : 2025년 6월 23일</p> <p>사 진 : 포함 (2매)</p>	작성과	고흥군의회의회사무과
		담당부서	과 장 : 정상태 팀 장 : 김도형 담당자 : 조보경
		연락처	061)830-6095

고흥군의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사용 제한 완화 촉구... 부모의 양육권 보호 강화
- 정부, “육아지원 제도 전반 개편과 실효성 있는 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20일, 제337회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촉구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현실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제한 완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현행 육아지원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월 250만 원 상한액은 실질적인 생계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은 다양한 양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 역시 단순히 연령 기준을 확대한 데 그쳐, 실제 양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이고 유연한 돌봄 지원에는 미흡한 상황이라 인식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9월 국회가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2025년 1분기 육아휴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전명숙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군민 누구나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더불어 “양육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 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적극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첨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1부.



첨 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육아지원 제도는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국가의 과제이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의 필수 기반이다.

국회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3년 9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육아휴직자는 4만 2,4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1,249명으로 57% 이상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부모 모두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이다.

정부 또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부모의 돌봄 책임을 제도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육아휴직’이라는 용어를 ‘육아몰입기간’ 또는 ‘아이돌봄기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용어 개편은 돌봄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적극적인 양육 참여의 시간으로 재정의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물가 시대에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보장받기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은 실제 양육환경과 부합하지 않다. 더불어 올해 2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 것은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단순한 연령 기준 확장에 그쳐 실제 양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부모의 생계 안정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실현하라!

하나.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고, 양육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단순 연령 기준 확대에 그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고 실제 양육 필요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5년 6월 20일

고흥군의회